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9>  
혜소국사 정현 (慧昭國師 鼎實: 972~1054) 上

# 강론장에서든 혜소국사 칭송 자자

인종 원년(1124년)에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경(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란 40권짜리 책을 지어 고려의 실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수(施水)'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왕성의 긴 행랑에는 매 열 칸마다 장막을 치고 불상을 모셔두며, 큰 항아리에 멀건 죽을 담아 국자를 놓아두었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떠먹게 하는데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승려들이 이 일을 맡아 한다."

21세기 초반 노숙자와 노인들을 위해 서울 여러 곳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고려를 방문한 이방인 서경의 눈에 신기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바퀴 말하면 당시 송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단 근자의 무료급식소와 비교해보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나가다가 떠먹게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억눌림 없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서경이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한 것은 1124년, 그보다 100년은 앞서 활동했던 혜소국사 정현의 이야기에서 이 같은 거리 모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부분적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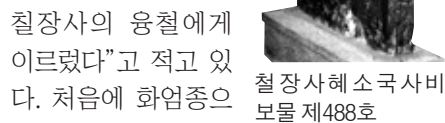
정할 수 있다. 혜소국사 정현은 개보 5년(972년, 광종 23년) 안성군에서 태어났다. 속성은 이(李)씨로 어머니는 김씨였다. 어머니 김씨가 밝은 달이 방 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스님을 입태했다고 한다. 임신 후 아버지는 자색가사 10여 벌을 스님들에게 헌납하고, 어머니는 보현보살 탕화 500탱을 조성하고 발원하기를 "만약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출가하여 스님이 되게 하겠다"고 발원

## 일곱 살에 수원 광교사에서 출가 계율에 깊은 관심 보여 율장 연구 법상종의 발생사상도 관심 보여

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스님의 가문이 안성의 유력한 호족이었음을 알 수 있고, 아이를 가지면 불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에서 고려 사회의 불교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스님은 일곱 살에 수원 광교사의 총회(總會) 스님에게 출가했는데, 이 광교사는 화엄종 사찰이었다. 그 후 23세가 되었을 때 법상종 승려인 용철(融哲) 스님 문하로 옮겨져 왔다. 비문에서는 "13년이 지나 스

소로 생각하기를, '구화(舊和, 방편)가 가장 요령있고 성상(性相)에 통하는 것은 십칠지(十七地)의 유가교문(瑜伽教門)만한 것이 없다. 이제 저 곳 [華嚴業]을 떠나 여기 [瑜伽業]로 나아가고자 한다' 하고는 멀리 칠장사의 용철에게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처음에 화엄종으로 출가했지만 나중에 유가업, 곧 법상종으로 옮겼다는 것인데, 비문의 내용으로 보면 십칠지의 유가교문 곧 (유가사지론)이 방편법문과 성상유포에 통하는 것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스님의 행적에서 더 이상 (유가사지론)과 관련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스님의 행장을 지은 문도 영념(靈念)의 유색일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스님의 성향 혹은 인연이 법상종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칠장사혜소국사비 비문 제488호

이후 스님은 개경의 영통사에 나아가서 구족계를 받았다. 25세에는 미륵사의 오교대선(五敎大選, 법상종의 승가시험으로 추

정된다)에 참여해 그 명성을 강장(講場)에 떨쳤다. 강론장에서도 역시 스님에 대한 칭송이 그치지지를 않았다고 한다.

스님의 일생 행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계율에 대한 관심과 <금광명경>과의 인연이다. 스님은 미륵사 오교대선에서 이름을 떨친 후 본사인 칠장사로 돌아와서 한 동안 율장을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시 법상종에서 중시하던 <금광명경>의 발생사상과 이어진다. 이 점에 대해 남동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칠장사비에는 정현이 칠장사에서 수학할 때, 계율에 관심을 갖고 율장을 학습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계율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발생사상으로 이어진 듯하다. 칠장사비는 정현이 1012년 법운사 도량에서 사냥꾼과 어부가 잡은 새와 물고기를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발생사상은 <금광명경>에 근거한다. <금광명경>의 발생사상은 중국 천태종의 지자 대사가 처음 강설했다고 전해지는데, 정현을 비롯한 고려전기 법상종 승려들의 발생이 <금광명경>과 관련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글은 서울대 남동신 선생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했음을 밝힙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6

임제종의 개조 예사이(榮西) ㉔

## 선종을 받아들이면 국가가 흥한다

흔히 예사이(1141~1215)를 일본 임제종의 조종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중국 임제종의 두 주류인 황룡파와 양가파 가운데 전자의 선을 전파한 조사다. 하지만 일찍이 임제선을 전파한 공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예사이는 14살에 히에산에서 출가하고 천태교학과 밀교를 배웠다. 당시 승려들의 학당에 해당하는 히에산에서 대장경을 완독할 정도로 경전에도 조예가 깊었다. 수학에 열중할 무렵, 세상은 역병이 나돌았다. 예사이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지,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일었다. 22세인 예사이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는 와중 중국 조사들의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일었고, 28세인 1168년에 큐슈 하카타를 경유해 중국에 건너갔다. 중국에서 토다이지[東大寺]의 승려로 호법(法然)의 정



예사이의 좌상

태종에서는 양 계통 모두의 포교 활동을 탐입했다.

어쨌든 수 없이 예사이는 큐슈의 하카타로 향해 쇼후쿠지[聖福寺]를 세웠다. 1198년 그곳에서 그의 선지(禪旨)가 담긴 <흥선호국론>을 저술했다. 공교롭게도 같은해 호넨의 <선택본원염불집>도 저술했다. 호넨은 이 책에서 선에 대한 기성 종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선의 본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선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을 흥하게 함은 곧 호국이라고도 역설했다. 종래의 호국경전인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 삼·죽음·나에 대한 의문 들어 단식에 들어 중국 천태산 순례해 20여 년간 밀교와 선 연구 몰두

토종을 연구하고 있던 초연(重淵)을 만나 함께 천태산을 순례했다. 그리고 아육왕상을 가져 6개월 후 천태 서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예사이는 이후 국내에서 20여 년을 밀교와 선 연구에 몰두했다. 47세 때인 1187년에는 중국을 경유해 현장 삼장이 걸어간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석존의 성지순례를 계획했다. 그러나 송나라 조정이 외적의 세력 하에 있는 순례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사이는 바다를 통해서라도 인도에 갈 계획으로 배를 뒀지만 3일 낮 3일 밤 동안 이어진 역풍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예사이는 절절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시 천태산에 올랐다. 그리고 약 5년간 만년사와 천동산 경덕산사에서 허암회창(虛庵懷敞)으로부터 황룡파의 선을 전수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미 수도 교토에는 천태 승려인 노닌[能忍]의 달마종이 선을 전파하고 있었다. 예사이가 입승하던 다음 해에 노닌은 제자 쇼넨(勝善)을 파견해 아육산에서 줄암덕광(拙庵德光)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던 것이다. 천

<흥선호국론>은 총 10장으로 기술됐다. 1장은 계율을 지켜 청정하면 불법은 영원히 상주한다는 것, 2장은 선종을 받들면 제천은 그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 3장은 선에 대해 무지하거나 편벽한 세인에 대한 반론, 4장은 과거의 승려가 선을 수행한 증거, 5장은 불타의 심인(心印)은 끊이지 않고 예사이에 이르고 있다는 점, 6장은 제 경론 중 교외별전, 불립문자의 가르침을 설한 증거, 7장은 선종의 대요를 드러낸 것, 8장은 선종의 시설·격식·조건 등에 대한 것, 9장은 인도·중국의 설법, 10장은 회향발원이다. 여기에서 예사이는 선의 정통성과 주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㉔

# 한국 전통 선풍 고수를 위해 발간된 '경허집'

경봉 스님은 선리참구원의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1941년(50세)에 재단법인 조선불교선리참구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선풍(禪風)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선원스님들을 중심으로 1942년 <경허집> 발간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표종정에 만공(滿空; 1872~1946) 스님이, 종정에 해월 스님(慧月; 1862~1937), 수월(水月; 1855~1928) 스님,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이 추대됐다.

경봉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금역에서 송만공(宋滿空)선사(禪師)에게 서한을 보내다.

어젯밤 장안에서 기적 한 소리를 남기고 떠났는데 이미 물금에 도착해 보니 날이 새고 달은 서산에 기울고 동해바다의 찬란한 아침 태양은 푸른 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리를 달려와 영축산

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보니 칼을 잡고 상대하는 것이 백전노장의 전술활용이라 능수능대하게 적심(賊心)으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니 일반 백성들의 발가락이 거의 저 적장의 작은 칼에 상하게 되니 찬양하고 칭송할진디.

비록 마음속에 독을 감추고 있지만 지혜와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니 몇 번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베풀었습니다. 온갖 만물을 맹렬한 불속에 던져 넣으면 그 모양과 성질은 전부 타버리나 금은 더욱 정교해질 뿐입니다.

만고의 푸른 못에 비친 허공의 달을 어찌 몇 번 건져 보고서야 겨우 이는가. 밝은 대낮에 사람을 속이지 마소. 악!」

위 내용은 만공 스님의 선풍과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만공(滿空)'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즉 '만고의 푸른 못에 비친 허공의 달'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또 경봉 스님이 통도사 강원에서 <화엄경>을 볼 때 감사스님이었던 한운(韓雲; 1879~1944) 스님과의 각별한 관계도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성부 성북정 222번지에 초가집이 한 칸 있으니 한운은 화상이 수도하는 곳이다. 집 이름은 '심우장'이라 하고 화상의 호를 목부(牧夫)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심우장 목부 화상이여, 어느 날 어느 때에 소를 잃었는가. 호를 목부라 했으니 소를 얻어 기르는 것이 분명하네 집을 심우장이라 했으니 소를 잃은 것도 분명하구나. 만약 본래 잃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소를 찾는 다하며, 또 만약 소를 잃었다면 어떻게 소를 먹인다 할 수 있겠는가. 심우장 목부 화상이여, 바로 이러한 때를 당해서 지금 소

를 찾고 있는가. 소를 먹고 있거나, 소를 찾고 먹이는 것을 함께 잊었는가. 심우장 목부 화상이여, 삼각산이 높고 높아 절첩해 높은 봉우리는 높고, 낮은 봉우리는 낮아 바람은 소슬하고 물은 차디 찬대 알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일구를 보내십시오.」

이에 대한 답장이 오기를

「털과 뿔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얻고 잃음이 있겠소. 목부(牧夫) 일이 많아서 부질없이 심우장을 지었네.」

이와 같이 편지로의 범거랑은 계속 이어진다. 참 아름다운 인연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도모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참나, 자성을 찾는 도반으로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 연수원 : 사자암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불사중) 총무원 직할 연수원에서 수행하실 (10월~)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 총무원 : 장원사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011-677-8525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엔루니스·인터파크·에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p>◆ 육임 학습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임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li> <li>· 육임육임사주강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li> <li>· 육임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 3종</li> </ul> <p>◆ 육임 활용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li> <li>·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li> <li>·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li> <li>·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li> <li>·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li> <li>·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li> <li>·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권본 1권 5만원</li> <li>· 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 8종</li> </ul> <p>◆ 육임 및 각 오형술 본계 CD프로그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임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350만원</li> <li>· 육임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li> <li>·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본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li> <li>·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임일상생활강정법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li> <li>· 육임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권 제3판본 1권 수록 30만원</li> <li>· 육임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li> <li>· 매화역수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li> <li>· 월영도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li> <li>· 성명학 2011정권판 수록 20만원</li> <li>· 정통부적보감 2011정권판 수록 5만원</li> <li>· 토정비결수록 5만원</li> <li>·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li> </ul> <p>◆ 기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임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li> <li>·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li> </ul> <p>◆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귀명수 전종1권 / 정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li> <li>·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li> <li>·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li> <li>· 육임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정작) 정가350만원</li> <li>· 육임육임경의CD100개 정가 120만원</li> <li>·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li> </ul>
--	--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 유림나라(주) 동업 301-0071-8027-017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콘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서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 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